

‘교육활동 지원비’ 11% 늘려 저소득층 학생 교육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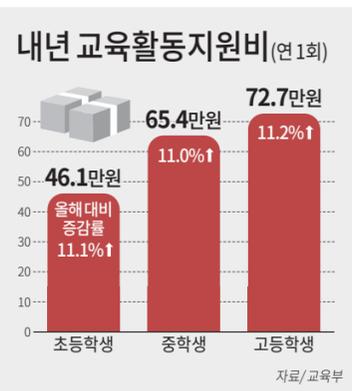
상향 급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
중위소득 인상 돼 지원 학생 늘어
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정부가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돼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 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 각각 11.1%, 11%, 11.2% 오르는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특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jh@metroseoul.co.kr



서울 트윈아이 조감도.

/서울시

서울 상암에 ‘트윈 휠’ 대관람차 들어선다

세계 최초 교차형태 관람차 사업추진
지름 180m 규모, 1440명 동시 탑승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형태의 대관람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Seoul TwinEye)’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 형태의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민간투

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더리츠 외 3개사로 구성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관람차 민간 사업자 공모에 지난달 29일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Spokeless)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로,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해 내진 및 내풍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며, 내·외측 휠을 활용해 동시 탑승 인원이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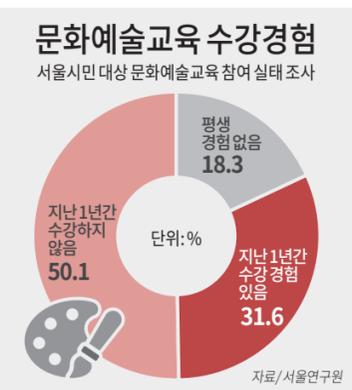
서울시민 32%, 문화예술교육 수강 경험

영화분야 가장 많아... 年 38만원 지출
성취감,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 영향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약 40만원이었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실태 및 정책 요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6%가 지난 1년 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생 경험 없음은 18.3%, 경험은 있지만 지난 1년간 경험 없음은 50.1%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수강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영화(30.4%)였다. 사진(11.7%), 음악(11.4%), 공예



(9.5%), 미술(7.6%)이 그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38만3000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8만4000원으로 씬씀이가 가장 컸다. 이어 30대 46만9000원, 50대 39만5000원, 20대 36만8000원 순이었다. 60대는 가장 적은 19만9000원

을 지출했다.

문화예술교육 수강 기간은 2~3개월이 33.9%로 가장 많았다. 4~6개월(22.5%), 1회성 프로그램(19.0%), 1개월 미만(14.9%), 7개월 이상(9.8%)이 뒤를 이었다.

시민 중 절반 이상(55.1%)이 문화예술교육을 혼자 수강한다고 답했다. 친구 및 연인(18.4%), 가족 혹은 친척(15.2%)이 그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삶의 의미, 성취감,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해’(20.9%)였다.

연구진은 “시민들은 수강했던 문화예술교육이 개인 심리적 차원, 자기 계발 및 성취감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ik1@

호서대, 교차설강제 등 ‘유연학사제도’ 도입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확대

호서대학교가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확대와 융복합 교육 강화를 위한 ‘유연학사제도 설명회’를 지난 달 28일 개최하고, 기존 유연학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신규 도입 제도를 소개했다.

3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호서대가 핵심으로 내세운 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교차설강제(Co-de Sharing)’다. 교차설강제란 전공 간 경계를 허물어 교수와 학생이 타 전공 수업을 개설하거나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주전공 시수 및 학점

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호서대는 이를 전면 시행해 학생 스스로 다양한 지식을 탐색·융합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하나는 ‘이중설강운영’이다. 이중설강이란 다전공 이수 소요가 많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서울, 천안, 아산, 당진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의 특성상 학생이 겪는 공간·시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호서대의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광명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나서

제설함 비치, 한파 대처 요령 홍보 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대책 기간 대설,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총 468개의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 1천700여 톤 및 살포기 19대와 제설기 4대, 덤프트럭 9대 등 제설 장비를 확보했으며 제설 대응 종합 훈련 실시, 인접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제설 공조 협조체계 구축 등 선제 대응을 완

료했다.

시는 한파에 대비해서는 T/F팀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민 보호에 나선다. 광명시는 대설, 한파에 시민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설·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기상특보 특보 발효 시 재난 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7:14

12월 4일 (월)
음력 : 10월 22일

수도권 날씨
-2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6/7
- 동두천 -5/8
- 가평 -6/7
- 파주 -6/7
- 서울 -2/8
- 양평 -5/7
- 인천 -1/8
- 수원 -1/8
- 용인 -1/8
- 평택 -4/8
- 백령도 5/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필리핀 남부해안 규모 7.6지진, 일본 등 주변국 쓰나미 경보
▲中 덩샤오핑 부총리 “선진국,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늘려야” /사진 뉴시스

▲“바이든을 버려라”...美일부 경합주 무슬림들 낙선운동 선언
▲美이스라엘 영사관 앞 시위도중 팔레스타인 시위자 분신 시도



▲중국 완상신탁, 1800억원 넘는 만기 도래 상품 환매 연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폭격·로켓포 탄 10만발 공격 /사진 뉴시스